

“선수 부족 등 어려움 있지만 사격 발전 최선”

●조상용 담양군사격연맹회장

1981년 연맹 발족 후 27년째 회장 맡아...담양고 사격부 창단도 군 사격팀 63회 전남체전서 3년만에 우승 탈환...38승 '대기록'

담양군 사격팀이 제63회 전남도체육대회에서 3년 만에 우승을 탈환하면서 조상용(72·사진) 담양군사격연맹 회장의 공로가 주목받고 있다. 25일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군 사격팀이 최근 열린 전남도체육대회에서 우승, 총 38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명성을 되찾았다. 담양군 사격부는 지난 2022년, 2023년 전남도 체육대회에서 영암군 세한대학교 사격팀에게 두 번이나 1위 자리를 내주면서 연속 우승을 놓

쳤다. 그러나 지난 17-19일 나주국제사격장에서 개최된 제63회 전남도체육대회 10m 공기소총·공기권총 결승전에서 단체전 우승(1천786점/1천800점)과 개인 3위(양화경 536점/600점)의 성과를 거뒀다. 이처럼 담양군 사격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은 조상용 회장의 숨은 공로가 크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조 회장은 사격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선수 관리도 물론, 사격 전반에 걸친 모든 분야에 발 벗고 나서 담양군 사격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는 지난 1973년 전남대학교 재학 시절 사격부와 인연을 맺어 전남대 사격선수로 활동하면서 1979년, 1980년 전남도체육대회에 담양군 사격선수로 출전해 우승했으며, 1981년 담양군 사격연맹을 발족해 선수들을 꾸준히 관리해 오고 있다. 특히 조 회장은 지난 1986년 담양고등학교 사

격부를 창단했다. 1994년, 1995년 담양고등학교 사격부가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조 회장은 1997-1998년 담양군체육회 상임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전남도사격연맹 부회장을 비롯해 담양군체육회 고문, 담양군사격연맹 회장직을 27년째 맡고 있다. 더불어 담양중·고 사격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물심양면 후원해 오고 있다. 조상용 회장은 “이번 담양군 사격부의 전남도체육대회 우승은 학교체육의 뒷받침과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훈련한 결과”라며 “날이 갈수록 학교체육의 선수 부족 등 어려움이 많지만, 담양 사격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윤명희 전남도의원 '지방정치대상' 우수상



윤명희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사진)이 지난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4 제6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문화기치 창달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25일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분권 활동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매년 전국 기초·광역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주민 생활 편의 확대, 문화기치 창달 등 총 7개 부문을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윤 의원은 천관산(장흥군 소재) 활성화를 위한 '어머님 품 천관산 프로젝트' 자문단 일원으로 참여해 도립공원 관리 실태 파악, 현지 방문, 지역 의견 청취,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등을 통해 관리·감독 촉구와 관광개발 방안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천관산 인근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행정과 주민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를 형성, 주민 편의시설을 관광객과 함께 공유하며 관광개발 이익이 지역 내에 정착되고 재투자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명희 의원은 “주민, 행정, 전문가가 함께하는 종합발전계획 추진 체계를 구성, 마을단위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재정 기자



서해해경청, 어선 전복사고 예방 실무회의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청사 대회의실에서 어선 전복사고 예방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의의를 개설했다”고 25일 밝혔다.

실무회의에는 내부위원 5명을 비롯해 목포해안대학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종합설계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사법, 선박설계 부분의 전문가 2명을 외부위원으로 추가 위촉해 실무협의체를 보강했으며, 사고 현황·원인 분석과 실무협의체 운영 취지를 설명하고, 국내 어선 복원성 사고 예방 조치 관련 사항 등을 발표했다. 또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고 예방 아이디어 제시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깊이 있는 토의를 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어선들의 관행적인 과적과 불법 증·개축에 의한 복원성 상실로 전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며 “어선 전복사고 예방 실무협의체를 적극 활용해 예방 중심의 해양 안전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광주매일신문 '신문윤리 위반사례' 사내연수

광주매일신문은 25일 오후 본사 교육실에서 편집국 등을 대상으로 '2024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을 실시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으로 마련된 이날 연수는 김기홍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위원을 강사로 초청, '신문윤리 위반사례'를 주제로 진행했다.

김 강사는 “기사의 핵심은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이라며 “사실에 충실하고 팩트로 무장한 뉴스에 기자의 주관·감정 등을 반영하게 되면 사실과 의견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섞이는 기사

가 나오게 되는데 이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목의 원칙 ▲명예훼손 ▲저작물의 존재와 인용(표절) ▲사실보도의 주의 등의 위반 사례 기사를 토대로 신문윤리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강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는 언론이 추구하는 가치”라며 “언론인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진실 보도가 팩트 체크 없이 이뤄지면 당사자는 물론, 언론사까지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사 작성 시 항상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주성학 기자



북구, 올해 '여성 행복 응원 네트워크' 위촉식

광주 북구는 25일 “전남 '여성 행복 응원 네트워크' 역량강화 교육 및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여성 행복 응원 네트워크'는 여성 분야 전문가와 여성 정책에 관심이 있는 마을 활동가 등을 구성 전면에 참여시켜 정책 발굴부터 집행까지의 과정에 여성 참여와 양성평등을 정착하기 위해 지난해 꾸려졌다.

최초 구성은 ▲평등 문화 ▲여성 경제 ▲안전 동행 ▲가족 친화 ▲역량 강화 등 5개 분과 위원 50명이었으나, 올해 북구는 네트워크 활성을 위해 100명으로 확대했다.

최유진 한국어성정책연구원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이해와 민관협업 중요성'에 대한 교육으로 시작된 행사에선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성평등 약속 상징의식 ▲분과별 간담회 등이 진행됐다.

향후 북구는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여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 친화 환경조성 ▲여성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 실현에 부합한 여성 특화 정책발굴 활동에 여성 행복 네트워크를 투입하고 연중 지원할 방침이다. /안재영 기자



기계설비協, 동신대에 '기술자 양성 지원금' 전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조인호)는 25일 광주·전남도회 사무처에서 동신대학교 건축기계설비융합전공과와 전주비전대학교 기계과에 각각 기계설비 기술자 양성을 위한 지원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서 협회와 각 대학은 기계설비 관련 학과 개설 확대 및 취업률 향상 방안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협회는 대학의 학생들에게 인턴십 기회 제공 및 진로, 취업 지원 ▲대학은 기계설비 관련 설계, 시공 샵드로잉, 감리, 유지관리

등의 교육과정 개설, 입학생 유치 노력 등을 위해 서로 협력키로 했다.

전상철 광주·전남도회장은 “기계설비 산업에 우수한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광주·전남 지역 기계설비 관련학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접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선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학과장은 “건축기계설비융합전공을 더욱 확대해 미래산업을 선도하고 교육 강화를 통해 최고의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진수 기자

화순경찰, 방송인 배동성씨 홍보대사 위촉

화순경찰서(서장 박웅)는 25일 정성·참여치안 구현을 위해 방송인 배동성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향후 2년 동안 전국을 누비며 화순경찰서 정성·참여치안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교통안전 캠페인, 노인들이 쉽게 당할 수 있는 보이스 피싱 예방 활동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배씨는 이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음 관리와 건강한 직장 생활을 위해 ‘행복은 선택이다’라는 주제로 특강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는 주제로 특강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해남경찰, 협력단체 연합회 정기회의 개최

해남경찰서는 25일 “지난 23일 '2024년 상반기 협력단체 연합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재향경우회, 경찰발전협의회, 안보자문협의회,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연합회, 시민명예경찰, 여성일상지킴이, 청소년육성회 등 총 10개의 경찰서협력단체장이 참여했다.

배승관 해남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도민들의 안전과 치안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담양·화순군 문화체육과 '고향사랑' 상호 기부

담양군은 25일 “군 문화체육과와 화순군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를 통해 업무 교류의 폭을 넓히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자체 간 상생 발전을 위해 상호 기부에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추진했다.

담양군 문화체육과 직원들은 화순군 문화예술과 직원과 함께 화순군에서 열린 고인돌 봄꽃 축제장을 방문해 서로의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역의 특산품도 홍보하며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병노 군수는 “이번 담양군과 화순군의 상



호 기부가 지역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기부 문화 확산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화합과 상생의 문화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나주 남평파출소, 민·경 야간 합동순찰 전개

나주경찰서 남평파출소는 25일 “전남 자율방범대와 간담회를 진행한 후 관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민·경 야간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평상시 경찰 및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고충·건의사항 등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합동 순찰은 민·경 20명이 강변 도시 아파트, 상가 등에 대해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윤옥성 남평파출소장은 “범죄 예방 활동과 민간인 협력 강화를 위해 자율방범대와 합동



순찰을 계속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주=정승환 기자